



홈쇼핑 업계
방송 전 과정서
시로 효율혁신
L1



Life

뷰티기업
체험·B2B 등
해외거점 확대
L2



동근 길 따라 흐르는 풍경... 바쁜 일상서 마주한 '초록 심포'



자연·교육 등 갖춘 '녹색 학세권'
녹지 밀도 높은 자연친화적 조경
외관 디자인으로 럭셔리 품격 더해

주민 참여형 공간인 '단지 내 텃밭'
중앙광장 중심에 위치한 티하우스
석가산·수경시설 한눈에 볼 수 있어

계절 느낄 수 있는 프리드로우 가든
단지 내 풋살장 등 이색적인 공간도



아파트의 미학(美學)

신검단중앙역 디에트르 더 에듀

인천지하철 1호선 신검단중앙역 2번 출구를 나오면 검단신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역 주변으로는 새 아파트와 견본주택, 공사 중인 단지들이 눈에 띈다. 상가도 하나둘 채워져 신도시 생활권의 윤곽이 선명하다. 도로 맞은편으로는 산과 공원이 펼쳐진다.

역에서 걸어서 약 15분가량 이동하면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신검단중앙역 디에트르 더 에듀'가 나타난다. '신검단중앙역 디에트르 더 에듀'는 대방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공급한 아파트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11개 동, 총 781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59㎡와 84㎡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단지에 다다르면 '더 에듀'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와닿는다. 맞은편에는 인천검단가온중학교와 인천신검단초등학교가 보이고, 길 건너 검단가온고등학교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도보권에 모인 교육 특화 환경은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근린공원과 금정산 등 녹지가 더해져 '완성형 녹색 학세권'을 자랑한다.

뒤편으로는 고인돌공원과 맞닿아 있고 금정산, 평강천이 가깝다. 신도시 특유의 정돈된 도로와 새로 조성된 녹지, 단지 안 조경이 맞물리며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신검단중앙역이 개통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넉넉한 주차공간도 강점이다. 단지는 세대당 약 2.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입주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키즈룸,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교육과 여가, 생활 편의를 단지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검단신도시는 최근 교통망이 개선되고 새 아파트가 활발하게 입주하며 수도권 서북부의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역세권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단지는 문주부터 동 입구까지 회색 석재 마감에 브론즈톤 금속 포인트를 적용해 차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활용했다.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반짝이는 금속 디자인이 주변 조경과 대비를 이루며 세련된 인상을 더한다.

단지 안쪽으로 들어서면 녹지의 밀도가 높아진다. 내부 조경에 그치지 않고 뛰어난 고인돌공원과 이어지는 구조를 갖췄다.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공원 산책길로 연결돼 숲과 잔디가 보이고 뒤편으로는 산자락이 펼쳐진다. 단지 안에서도 초록 풍경이 끊기지 않아 '공세권' 입지를 체감할 수 있다. 산들바람이 드나드는 동선은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완성한다.

단지 한편에는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인 육생비오톱을 만들어 다중구조 식재와 돌무더기, 나무더미를 조성했다. 매화나무, 목백합, 산수유, 소나무, 자작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만날 수 있다.

단지 내 텃밭은 입주 주민 참여형 공간으로 꾸며졌다. 주민들이 직접 작물을 관리하고 가꾸는 가드닝을 통해 이웃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한 친환경 커뮤니티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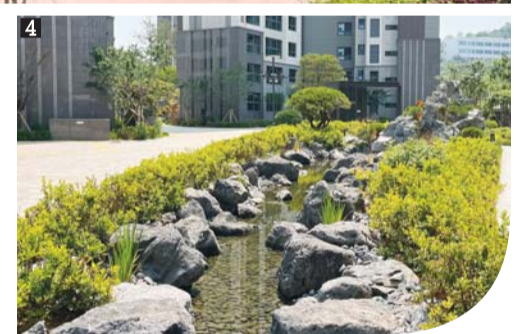
단지 중앙부에 자리한 'D 서클 유티어 가든'은 '신검단중앙역 디에트르 더 에듀'의 핵심 조경이다. 중앙광장과 수경시설, 석가산, 티하우스, 산책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돼 단지를 걷는 동선 자체가 하나의 조경 체험이 된다. 동글게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물길과 정원, 휴게공간이 차례로 나타나 단조롭지 않다. 돌과 물, 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은 단지 안에 작은 연못과 계곡을 들여놓은 듯하다.

수경시설이 티하우스를 안고 있는 형태도 눈



- 1 단지 중앙부에 위치한 중앙광장과 연못으로 꾸민 수경시설.
- 2 중앙광장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티하우스.
- 3 단지 뒤편에 위치한 고인돌공원.
- 4 계곡을 담은 단지 내 수경시설.

/성채리 수습기자



에 띈다. 티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넓은 창으로 석가산과 물길이 한눈에 들어온다. 외부 테크와 테이블도 함께 조성돼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바람을 맞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조경 공간 설계에는 '디에트르 파사드'가 적용됐다. 2022년 굿디자인 어워드 공간·환경 디자인 부문에서 수상한 대방건설의 공동주택 입면 디자인이다. 디에트르 파사드의 사선 디자인은 열린 문틈에서 새어 나오는 빛을 모티브로 한다.

다양한 콘셉트로 구성된 정원은 친환경 조경의 완성도를 높인다. 프리드로우 가든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식재로 꾸며진 정원이다. 철쭉 등 색깔 있는 식물을 통해 단지 안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서클 가든은 원형

동선과 휴게공간을 중심으로 머무름에 초점을 맞췄고, 크로스 가든은 여러 보행 동선이 만나는 지점에 녹지와 휴식 기능을 더한 공간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공간은 풋살장이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보기 드문 시설로, 입주 주민들이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펜스로 둘러싸인 인조잔디 구장에는 골대와 농구대를 함께 설치했다.

어린이 놀이터는 밝은 색감과 입체적인 놀이 기구로 꾸며졌다. 별과 달을 모티브로 한 미끄럼틀, 터널형 기구 등을 배치했다. 지하 공간과 지상 정원을 연결하는 쉼터 구조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



▲ '월드컵 쇼크' 2개월 뒤 아시안게임...U-23 이 민성호에 시선
▲ 프로야구 두산, 다즈 카메론 후임으로 유니오 르 세베리노 영입 /사진 뉴시스

▲ 월드컵 美 대표팀, 보스니아에 2:0 승리...勝 주역 발로건은 '레드카드'
▲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선수 명단서 빠져...아틀레티코 마드리드 行 유력

▲ 남자배구 현대캐피탈, 아시아쿼터로 中 국가대표 출신 장추안 영입
▲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대표팀 확정...안세영, 역대 최초 단식 '2연패' 도전